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

제 정 2015. 2. 25
개 정 2016. 3. 02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해양환경관리공단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업무 처리기준 및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①이 지침은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(이하 '직원'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 다만, 휴직자 및 국외에 파견중인 자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직 직원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입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선택적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근속복지점수”라 함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 년수에 1년 근속 당 10P 가산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. 다만, 최고 포인트는 200P로 제한한다. (1P=1,000원)
2. “가족복지점수”라 함은 별표 1에 따라 배정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.
3. “월할계산”이라 함은 당해 연도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, 사유발생일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 월로 적용하여 계산한다.
4. “기본항목”이라 함은 생명·상해보장보험 및 의료비보장보험 가입을 통한 운영 항목을 말한다.
5. “자율항목”이라 함은 직원이 건강관리, 자기계발, 여가활용, 가정친화 등의 목적으로 자율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.

제4조(적용기준) ①복지점수는 기본점수와 변동점수로 산정하며,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.

- ②기본점수는 직원 개개인에 일률적으로 700P를 부여한다. (1P=1,000원)
- ③변동점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를 차등하여 부여한다.
- ④가족복지점수 배정 기준이 되는 부양가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당해 연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으며, 다음 해 복지점수 부여 시 해당 변동사항을 반영한다.

제5조(복지점수의 계산) ①적용기간 중 신규채용·국외파견·휴직·복직·면직·해임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·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적용한다.
 ②개인별 복지점수 부여 시 복지점수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.

제6조(복지점수의 정산) ①복지점수는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전액 소멸된다.
 ②휴직, 퇴직, 징계처분, 국외파견 등 변동사유로 인한 과 사용 점수의 환수사유 발생 시 월할 계산하여 과 사용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.
 ③계약직 직원에 부여하는 복지점수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신분변동자의 복지점수) 연도 중 신분이 변동되는 직원의 복지점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신규 임용자는 임용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. 단, 12월 신규 임용자는 당해 연도 기본항목 복지점수만 부여한다.
2. 휴직자 및 6개월 이상 국외파견 복직(복귀)자는 복직(복귀)하는 달을 실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산한다. 단, 12월 복직(복귀)자는 당해 연도 기본항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한다.
3. 퇴직자는 퇴직일까지 월할 계산하여 부여한다.
4.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중인 자는 다음 연도의 근속복지점수 가산을 제한한다.

제8조(선택적복지제도의 항목) 선택적복지제도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.

제9조(복지점수 사용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없다.

1. 보석, 복권, 경마장 마권, 유희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
2. 상품권, 주유권,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
3. 성형, 치열교정(지적장애 제외)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
4.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

제10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복지제도 관련 중대한 사항의 의결을 위하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기획본부장(당연직)으로 한다.

③위원은 각 본부·실 선임 부서장 및 노사협의회 노측 대표 중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(위원장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④회무의 처리를 위해 선택적복지제도 담당자 1인을 간사로 한다.

⑤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⑥위원장은 긴급 또는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위원회 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2.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
3.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지침은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지침 제정 이전에 시행된 선택적 복지제도는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6년 3월 02일부터 시행하되, 지침 개정 이전에 시행된 선택적 복지제도는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가족복지 점수 배정 기준

구분	복지점수
배우자	200P
직계존속 및 자녀	각 50P (자녀3명이상 포인트 지급시 100P 추가 부여)

- 가족복지점수 배정여부 판단 기준일은 출생, 혼인, 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
- 가족점수 배정 기준
 -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
 - 해당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
 -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함. 다만,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.
-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속 직원이 2인 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직원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직원에게만 가족점수를 부여

<부양가족 기준>

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 및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취학·요양 또는 주거형편이나 근무형편에 의하여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. (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)

1. 배우자
2.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(여자의 경우 만55세)이상의 직계존속 및 만60세 미만의 직계 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
3.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20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
4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

[별표 3]

자율항목 범위 및 내용

분야별	항 목 별	수혜대상
자기 계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어학 등 학원수강료 ○ 능력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및 전문도서 및 자료 구입비 지원 	본인
건강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강진단 및 의료비 ○ 안경, 보청기 등 보조용구 구입 ○ 헬스센터, 수영장 등 건강시설 이용료 	본인 및 부양가족
레저 취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레저·스포츠 활동 및 관련 동호회 활용비용 지원 ○ 국내외 여행관련 비용(숙박·교통비, 입장료 등) 	본인 및 부양가족
문화 생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극, 영화, 음악회,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 비용 및 문화행사 참가비 	본인 및 부양가족
가정 친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취학 전 자녀 보육시설, 유치원 교육 등 자녀교육비 지원 ○ 주거, 요양, 여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료 및 어버이날 등 효도선물 구매비용 	부양가족